



이전에 펼쳐진 '영산강 환경문화년' 장면. <영산강문화관 제공>

# 영산강서 힙하게~ 여가 즐기며 자원순환 동참해요

28~29일 '영산강 환경문화년'  
친환경 마켓·캠핑 등 6가지 테마  
재활용 자원, 환경화폐로 교환

환경 위기, 기후 위기와 맞물려 물에 대한 소중함, 자연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대로 되돌리기까지는 몇 배의 노력과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영산강은 광주와 남도를 아우르는 '생명의 젓줄'이다. 영산강은 유구한 세월 남도의 비옥한 농토를 적시며 지역민과 함께 왔다. 누대에 걸쳐 생명의 강이자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운 문화자원으로서 영산강은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중요한 자연 자원이다.

올해도 영산강과 환경을 모티브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승촌보 일대에서 펼쳐진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이현아)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영섬권역지사(지사장

신성규)는 오는 28일~29일(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승촌보 앞 영산강문화관에서 '영산강 환경문화년'을 연다.

올해 주제는 'Hip&Roll(힙앤롤) 영산강'. 4회 차를 맞은 이번 '영산강 환경문화년'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친환경 마켓, 나눔장터, 캠핑, 공유자전거, 놀이, 캠핑 등 6가지 테마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사 등으로 기획됐다.

특히 행사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미니멀 웨이스트'에 초점을 맞췄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인증하며 우유팩, 멸균팩 등 재활용 자원을 가져오면 행사장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환경화폐를 증정할 계획이다.

친환경 마켓은 다양한 환경 유관기관이 참여해 힘을 보탠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을 비롯해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공유센터, 메어리숲생태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승촌보 인근 지역농가 판로개척을 위한 프로젝트도 마련돼 있다. '영산강 에디션 로컬푸드'

일환으로 로컬푸드 시식회 및 판매부스가 운영되는 것.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당근라떼 미니리깅밥, 배레몬에이드 등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부물품을 활용한 바자회, 타포린 업사이클링 체험도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바자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직원의 기부물품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캠핑 시터에는 피크닉 공간이 마련되며, 광주시 협조로 공유자전거 '타랑개'를 영산강문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경정비 수리도 제공된다.

흥미로운 체험도 펼쳐진다. 친환경 놀이 구역에서 숲해설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태놀이 체험을 비롯해 천연 수세미·영산강 생물 저금통 만들기 등도 진행된다.(물로켓 만들기 체험은 사전 신청자 모집)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가족캠핑친환경 캠프는 광주환경공단 협조로 오는 10월 5일~6일 승촌보 캠핑장에서 열린다. 학오름마을교육공



재활용 자원 회수 및 환경화폐 배부 모습. <영산강문화관 제공>

동체 주도로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보태니컬 아트, 자전거 생태탐사 등을 선보인다.(참가비는 무료, 25가구 약 100명 모집)

이현아 영산강보관리단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영산강 환경문화년'은 영산강과 환경을 모티브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물환경문화 프로그램을 매개로 여가도 즐기고 자원순환에도 동참하는 일석이조의 보람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문화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 취임

신임 국립광주박물관장에 최흥선(54세) 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이 취임했다.



최흥선

광주박물관은 제13대 신임 관장에 최흥선 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이 최근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 임실 출신인 신임 최 관장은 마한~후백제를 중심으로 한 호남 고고학의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전북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최 관장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 13번째 국립박물관인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립익산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을 역임하는 등 24년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 관장은 "국립광주박물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도자문화관의 성공적 개관 및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아울러 광주박물관이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함께 빛나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달빛 동맹' 달빛 클래식

광주·대구 문화예술교류...24일 대구시향's 브루크너 공연

빛고을 광주와 달구벌 대구가 '달빛동맹'을 통해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특별기획 시리즈가 펼쳐진다. 그 첫선으로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대구시립교향악단's 브루크너'를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대구시향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백진현이 지휘봉을 잡으며 메조소프라노 백민아가 출연,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 파야, 헝가리의 코다이, 브루크너의 곡을 들려준다.

공연명이기도 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브루크너(1824-1896)는 교향곡과 종교 음악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웅장하고 서정적인 교향곡이 대구시향의 선율로 표현된다.

먼저 코다이의 '갈란타 춤곡'이 울려 퍼진

다. 헝가리의 전통 춤곡을 기반으로 리드미컬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전하는 곡이며,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헝가리안 특유의 정서를 전한다.

이어지는 '사랑은 마술사'는 피아의 발레 모음곡으로 스페인 플라멩코의 열정을 묘사한다. 복잡한 사랑의 드라마틱한 감정은 메조소프라노 백민아의 목소리를 통해 고조된다. 끝으로 브루크너 '교향곡 d단조, WAB 100번'이 대미를 장식한다. 브루크너의 초기 작품으로 웅장함, 깊이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한편 1964년 창단한 60년 역사의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창단 이래 다양한 레퍼토리로 영남 지역 클래식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일본 도쿄



'대구시립교향악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에서 '아시아오케스트라워크' 초청 공연을 펼쳤으며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체코 프라하 스테타나 홀,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리인 황금홀 등에서 유럽 3개국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이번 공연은 영호남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교류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로 정교한 앙상블을 만드는 대구시향의 울림이, 광주 클래식 애호가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석 3만 원, A석 1만 원.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 몽골 유목민의 정체성과 예술성

전남대박물관, 몽골 청년 작가 초대전...27일까지 역사관

몽골하면 푸른 초원과 유목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광활한 자연과 결부된 유목의 전통은 오늘의 몽골을 이룬 토대다.

유목민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미술작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몽골 청년 작가 초대전 'Art & Spirit' (사진)을 오는 27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실에서 연다.

참여작가는 모두 3인. Namkhajantsan Rinchin-ochir(남칸스탄 린친 오크), Enkhtuvshin Purevsuren(엔카흐스산 퍼브선), Batsukh Soninbayar(백흐스탄 손베이아)들로 이들은 미국·중국·독일 등에서 전시를 매개로 몽골 미술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알려온 작가들이다.

이들 작가들의 삶의 기저에는 저마다 경험한 유목의 면면이 드러워져 있다. 자연과 전통, 유목민 생활은 몽골 전통미술 기법, 현대적인 방식과 맞물려 이색적인 분위기를 발한다. 3인의 시각과 기법으로 특색있게 구현한 작품 20여 점은 몽골의 자연과 전통, 문화의 다채로운 이미지가 함축돼 있다.

특히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등장하는 말



(馬)은 몽골을 이해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이며 미술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말은 일반적으로 초원을 달리는 말의 그것과는 변별된 아우라를 발한다. 말을 매개로 삶을 꾸려온 이들에게 말은 동물을 넘어 가족과 신화적 이미지로 격상된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 나라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지만 활달하면서도 기상이 넘치는 장면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한편 정몽규 박물관장은 "'Art & Spirit'전은 예술과 정신을 결합한 주제로 몽골민족의 정체성과 예술성의 특징을 드러낸다"며 "자연이 선사하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몽골 초원에 깃든 신비로운 예술세계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오래된 신민요에 깃든 유연한 힘

북구문화센터 '늙은 노래의 좌표'...27~28일 밴드 '더툰' 출연

100여 년 전 유행하던 '신민요'는 서양 알츠와 전통 민요를 혼합해 만들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목숨이 끊어질 위기를 맞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신민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북구문화센터가 '늙은 노래의 좌표'를 오는 27일(오후 7시 30분), 28일(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2024

콘서트 IN 북구 두 번째 시리즈며 창작곡과 밴드 '더툰' (사진)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의 막은 시공간이 열리는 어느 날 100여 년 전 노래들이 말을 걸어온다는 컨셉의 더툰 창작곡 '낙산야경'으로 연다.

이어 평양 기성 출신 1세대 신민요 가수인 선우일선이 불러 히트한 '꽃을 잡고'를 만날 수 있다. 경도리 선율과 수심가토리 장단으로 이뤄졌으며, 정아한 고음이 돋보이는 신민요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곡이다.

지금의 김윤영·상암동 사거리 고개를 모티브로 창작한 '개나리 고개'도 레퍼토리에 있다. 1960년대까지 유행했던 산노래이며 작곡에 김준영.

통영개타령의 전신이라는 설이 있는 '삼살개

타령'은 동네 삼살개들이 짚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투영한 작품이다. 싱크페이션(강김음)이 돋보이는 연주와 관객참여 요소 등으로 원곡의 해학과 익살을 살려냈다.

협조하는 최고(最古)의 발성영화 '미몽'의 OST인 '피리소리', 일제강점기 지방으로장사한 입을 에타게 그리는 '관서전리'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외 '오동나무', '파수관', '뒹땀치' 등 다양한 편곡 및 창작곡들이 울려 퍼진다.

북구문화센터 문나리 홍보담당은 "1930년대 혼란스런 역사와 문화충돌의 시기에 스스로 힘을 키웠던 '신민요'들에 색깔을 입히는 공연"이라고 했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 5·18과 예술의 관계

전남대 박구용 교수 강연...23일 시립미술관

5·18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로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5·18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무명의 광주시민들과 항쟁에 가담했던 의로운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구용 교수

지금까지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5·18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창작됐다. 많은 작품들이 공연되거나 전시 또는 활자화됨으로써 그날의 참상은 물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5·18과 예술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되고 구워내 왔을까. 5·18과 예술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5·18과 예술'을 주제로 23일(오후 3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포럼을 연다. 2024 미술관 포럼 일곱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번 포럼은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박 교수는 5·18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며 예술이 5·18의 역사적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언, 애도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진행된다.

박 교수는 전남대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철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5·18기념재단 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포럼에서 박 교수는 예술이 5·18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했는지 등을 고찰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그날의 진실을 함께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